

자문교수

한국측 (총60명)

강 돈구(한국학중앙연구원)	고 종현(부경대)	김 경모(경상대)	김 동일(부산대)	김 명재(안동대)
김 미경(광주대)	김 민배(인하대)	김 상준(연세대)	김 선웅(한양대)	김 순천(전남대)
김 웅의(전남대)	김 용직(성신여대)	김 중서(서울대)	김 중락(경북대)	김 춘미(고려대)
김 현철(서울대)	김 해숙(이화여대)	김 호섭(중앙대)	김 호성(동국대)	노 길명(고려대)
노 진철(경북대)	문 옥표(한국학중앙연구원)	문 지영(숙명여대)	박 경하(중앙대)	박 성빈(아주대)
박 해광(전남대)	배 현석(영남대)	서 영대(인하대)	소 동호(전북대)	신 경철(부산대)
신 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양 영웅(제주대)	양 은용(원광대)	양 준호(인천대)	여 박동(계명대)
우 찬재(서강대)	유 임수(이화여대)	육 동일(충남대)	윤 원철(서울대)	윤 총원(전북대)
이 병로(계명대)	이 진오(부산대)	이 창익(제주대)	이 호영(서울대)	임 중빈(경상대)
장 사선(홍익대)	장 원호(서울시립대)	정 근식(서울대)	정 대연(제주대)	정 하미(한양대)
조 병택(한양대)	조 성환(경기대)	조 전혁(인천대)	조 현래(부산대)	지 현숙(배재대)
최 덕경(부산대)	최 인택(동아대)	추 영식(조선대)	하 우봉(전북대)	한 준상(연세대)

일본측 (총99명)

가가와 코조(오사카여학원대)	가라토 오키노리(훗카이도대)	가스야 켄이치(히토츠바시대)
가와구치 요시카즈(와세다대)	가와무라 쿠니미츠(오사카대)	가츠라지마 노부히로(리츠메이칸대)
간다 히데오(덴리대)	고마츠 카즈히코(국제일본문화연구원)	고마키 테루오(고쿠시칸대)
고바야시 테루오(간토학원대)	고지마 야스노리(국제기독교대)	고타니 히데후미(국제기독교대)
구라바야시 마사토(조사이국제대)	구로즈미 마코토(도쿄대)	구메 테루유키(릿쿄대)
기무라 카즈아키(리츠메이칸대)	기미야 타다시(도쿄대)	기시 마사미(쥬오대)
기쿠노 카즈오(아토미학원여자대)	기쿠타 코이치(메이지대)	나카노 마사토시(아시야대)
니시야마 시게루(도요대)	니시카와 토시유키(스루가다이대)	닛타 히토시(고가쿠칸대)
다나다 히로후미(와세다대)	다사키 노부요시(히토츠바시대)	다야마 테루아키(와세다대)
다카카기 츠미치로(리츠메이칸대)	다카하시 후미히로(오카야마대)	다케다 시게오(간사이국제대)
도시마 타모츠(현립히로시마대)	도자키 하지메(메이지대)	마부치 사다토시(도쿄학예대)
마츠노 슈지(리츠메이칸대)	마츠바라 타카토시(규슈대)	마츠자키 켄조(세이조대)
마키노 에이치(호세이대)	모리시마 마키토(간토학원대)	모리타 에이치(미야자기산업경영대)
모리히라 마사히코(규슈대)	무라야마 히로시(리츠메이칸대)	사노 켄지(가나가와대)
사사키 미츠오(일본대)	사이토 요시히코(독쿄대)	사지마 아키코(후쿠오카여학원대)
사카모토 타다시(난잔대)	사쿠라이요시히데(훗카이도대)	사토 에이사쿠(에히메대)
세키네 슌이치(데즈카야마대)	스가와 히데노리(요코하마국립대)	스기하시 타카오(리츠메이칸대)
시마 무츠히코(도호쿠대)	시마무라 히로키(와세다대)	시마조노 스스무(도쿄대)
시바타 히로토시(센슈대)	아리타 신(동경대)	아사쿠라 토시오(국립민족박물관)
아구치 토시아키(가나가와대)	아마조 토오루(도시샤여대)	오사 시즈에(고베시외국어대)
오오나시 히로시(교토대)	오오나시 유타카(고베대)	오오시마 타쿠(조사이대)
오오이시 요시히로(메이지대)	오자와 토모하루(규슈국제대)	오카다 마사노리(와세다대)
오카모토 아키라(히로시마여학원대)	오카지 카츠히(류큐국대)	와타나베 사토시(시즈오카현립대)
요코자와 토시마사(아시야대)	우노 마사오(조사이국제대)	우사키 마사히로(독쿄대)
유미야마 타츠아(다이쇼대)	이나바 케이신(고베대)	이시다 마사미(조사이국제대)
이와모토 미치야(도쿄대)	이와부치 타다스 (와세다대)	이와이 히로시(칸사이국제대)
이와사키 타케히코(쿠마모토대)	이와이 히로미(데즈카야마대)	이이다 타카후미(도야마대)
이 종원(릿쿄대)	이토 아비토(도쿄대)	이토 마사유키(아이치학원대)
츠시마 미치히토(간세이학원대)	치쿠다 노부오(중앙대)	하라다 히데오(유통경제대)
하마나 아츠시(간사이국제대)	하시모토 타테오(나가사키대)	핫토리 타미오(도쿄대)
호리우치 마사히로(아오야마학원대)	호소부치 토미오(사이타마대)	후지이 타케시(도쿄학예대)
후치가미 카츠요시(오카야마대)	후카가와 히로시(규슈대)	후쿠다 야스노리(에히메대)
후타가미 코이치(아이치학원대)	히라이와 슌지(시즈오카현립대)	히오키 코이치로(교토대)

운 영 위 원

포럼대표 : 장 제국(동서대) 운영위원장 : 이 원범(동서대)

한국측(9명)

김 미현(이화여대)	박 환영(중앙대)	신 광철(한신대)	이 진한(고려대)	임 석준(동아대)
전 흥찬(부산대)	정 승연(인하대)	최 정기(전남대)	최 종성(서울대)	

일본측(9명)

가시오 나오키(게이오대)	가와세 타카야(교토부립대)	고하리 스스무(시즈오카현립대)
니시노 쥬야(게이오대)	삿사 미츠아키(리츠메이칸대)	오구라 키조우(교토대)
요코테 유타카(도쿄대)	다카세 코이치(와세다대)	하야시 유스케(메이세이대)

>>대회장 안내도



◎교통안내

-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603번 리무진을 타고 서울대 정문 하차
- 서울역에서 501, 750번 파란색 버스 이용 서울대 정문 하차
- 지하철 2호선 이용, 서울대입구역 하차

◎연락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사무실**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02-880-6237

- **Hotel Stay 7(대회본부 지정호텔)**
151-060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61-7
전화 02-873-1033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URL: www.japancenter.or.kr Tel : 051-320-1900
E-mail : japancenter@dongseo.ac.kr Fax : 051-320-1902

한일 차세대 학술포럼

제5회 국제학술대회

공개토론 테마

KOREA JAPAN JAPAN KOREA
韓国 in 日本, 日本 in 韓国

- 일시 : 2008년 6월 21일(토)~22일(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관

- 주최 : 한일 차세대 학술포럼
- 주관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협찬 : KOREA FOUNDATION, JAPAN FOUNDATION,
 KB 국민은행, 동서대학교

- 후원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韓国

in

日本

모시는 말씀

한일차세대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으로 벌써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저희 포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본 포럼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한일 양국의 차세대 연구자가 무려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소장 학자로서 자리를 잡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하여 맺은 인연이 서로 간의 좋은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학문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주최측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대회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의무감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금년도 학술대회의 주제는 「^{KOREA} 韓国 ^{JAPAN} in ^{JAPAN} 日本, ^{KOREA} 日本 in 韓国 」으로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간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아직도 때로는 상대국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그것이 양국 관계를 왜곡시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이면서도 복잡한 한일관계에 대해, 차세대 연구자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가져 봄으로써, 한일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훌륭한 캠퍼스를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흔쾌히 주관기관을 맡아 주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본 포럼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장 제 국



